

## PA-015

## 국내 벼 품종의 농가 재배실태 조사와 신품종 보급

서명철<sup>1\*</sup>, 김준환<sup>1</sup>, 상완규<sup>1</sup>, 조정일<sup>1</sup>, 신평<sup>1</sup>, 백재경<sup>1</sup>, 권동원<sup>1</sup>, 이윤호<sup>1</sup>  
 Myung Chul Seo<sup>1\*</sup>, Jun-Hwan Kim<sup>1</sup>, Wan-Gyu Sang<sup>1</sup>, Jung-Il Cho<sup>1</sup>, Pyong Shin<sup>1</sup>, Jae-Kyeong Baek<sup>1</sup>,  
 Dong Won Kwon<sup>1</sup>, Yoon-Ho Lee<sup>1</sup>

<sup>1</sup>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sup>1</sup>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Jeonbuk 55365, Korea

## [서론]

우리나라 벼재배는 지난 50여년간 지속적으로 품종이 개발 및 농가보급을 통해 발전해왔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라 기후 적응성이 높은 품종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벼 품종은 국가에서 지정하여 보급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재배하는 품종의 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품종개발이나 기후변화 적응 재배기술 개발, 정책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자 우리나라 벼 품종의 농가재배 실태조사와 분석 및 신품종 보급률을 분석하였다.

## [재료 및 방법]

품종별 농가재배면적 조사는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에서 매년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대상 기간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벼는 신품종 등록이후 보급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특성이 있어 벼 신품종은 등록이후 10년까지를 신품종으로 정의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신품종 보급률을 조사 분석하였다.

## [결과 및 고찰]

벼 재배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94.5만ha에서 2019년에는 73.0만ha로 14년간 약 21.6만ha가 감소하였다. 벼 생태형별 재배비율은 평균으로 조생종 10.4%±1.2, 중생종 5.1±1.4, 중만생종 84.3±1.8로 분석되었다. 14년간 조생종 품종의 농가재배 상위 10 품종의 수는 33품종으로 품종의 변화가 많이 있었으나 윤광벼, 오대벼가 계속적으로 1, 2위를 차지하였고 2010년 이후로 일본 품종인 고시히카리가 3위 품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형국이다. 중만생종의 경우 21 품종이 상위 10품종에 해당되었으며 2000대 후반에는 동진1 호가 많이 재배되었으나 2010년대 초에는 호품벼, 중반이후로는 새누리가 많이 재배되었다. 신동진의 경우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3년에는 새누리와 역전현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정부보급 품종에서 새누리를 제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도입품종인 추청벼는 2009년 14.1%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에는 7.4%까지 감소하였다. 2006년부터 상위 10품종에 계속하여 포함된 품종으로는 추청, 일품, 신동진이 있으며 일미는 2019년에 14위로 떨어지고 새일미로 대체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조생종 벼 신품종 재배면적 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2019년까지 보았을 때 품종 수도 증가하고 재배면적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중만생 품종 가운데 신품종 재배면적 비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51%, 42%, 13%, 21%, 21%로 연차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주저자: Tel. +82-63-238-5281, E-mail. mcseo@korea.kr